

# 美 “쇠고기 선적 중단 조치 풀어달라”

## “내수용 갈비 수출 실수 인정...추가 사례 없다”

미국 내수용 쇠고기의 한국 수출 파문과 관련, 미국 정부가 “이미 밝혀진 2건 이외의 현재까지 추가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는 내용의 조사 결과를 통보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또 미국측은 일단 이번 사고의 책임을 자국 수출입관리업체 아멕스(Am-Mex)에 돌리고 문제의 쇠고기를 생산한 대형 육류가공업체 카길과 타이슨사에 대해서는 선적 중단 조치를 해제해달라고 우리측에 요청했다.

7일 농림부와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등 검역당국 관계자들에 따르면 미국 농무부는 이날 이같은 내용의 1차 조사 결과를 우리측에 전달했다.

우선 미국측은 이 문서에서 지난달 25일과 26일

각각 부산항에 도착한 카길사의 15.2t, 타이슨사의 51.2t 뿐 아니라 이전 수출분 가운데 한국 수출증명(EV) 프로그램을 거치지 않은 것이 있는지 조사했으나, 2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한국 수출용으로 판명됐다고 밝혔다.

이 조사를 위해 미국 정부는 우리측에 4월말 이후 검역을 통과해 시중에 풀린 14건 50여t의 수입 당시 첨부했던 검역증과 바코드 등을 보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또 미국측은 현재 한국용 수출검역증을 받았으나 아직 한국에 도착하지 않은 물량에 대해서도 모두 면밀히 추적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미국측은 한국 수출 요건에 맞지 않는, 미

국 정부의 수출 증명(EV) 프로그램에 따르지 않은 수출이 이뤄진 점을 인정하고, 구체적 검역증 발급의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1차 조치로는 아멕스가 관여하는 모든 국가로의 수출건에 대해 수출증명서 발급을 중단했고, “이번 일을 우리가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한국에) 보여주기 위해” 사전 예방적 조치로서 작업장들에 EV 프로그램과 지침을 재교육하고 있다고 미국 정부는 강조했다.

미국측은 이같은 예비 조사 결과를 고려, 한국측이 카길사와 타이슨사에 대한 선적 중단(수출 중지) 조치를 풀어주기 바란다는 요청도 덧붙였다.

한편 6일(현지 시각) 키이스 윌리엄스 농무부 대변인은 이번 사건이 수출입 관리업체인 아멕스(Am-Mex)와 농무부 관리들의 실수 때문에 빚어진 일이라고 해명했다. /연합뉴스



G8 정상회담 첫 날(6일) 독일 동북부 불하겐 부근에서 도로를 봉쇄한 반(反) G8 데모대의 한 청년이 물대포를 쏘는 폭동진압 경찰을 향해 아우의 손짓을 보내고 있다. /AFP=연합뉴스

## 부시와 아베 G8 정상에 북핵 강경책 주문

### “인내심에 한계...해결 없으면 중대조치”

미국과 일본은 6일 독일 하일리겐담에서 열린 8개국(G-8) 정상회담에 참석해 G-8 정상들에게 북핵 문제에 강경 정책을 취해줄 것을 주문했다.

부시 미국 대통령은 G-8 정상회담에 앞서 열린 미일 양국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2·13 합의를 존중, 핵무기 프로그램을 중단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베 일본 총리는 북한이 핵무기 프로그램과 관련, 국제적 긴장을 완화하는데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 뒤 “G-8 정상들이 북핵 문제 등에 대해 강경한 메시지를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부시 대통령과 합의했다”고 말했다.

부시 대통령은 또 북한의 일본인 납치문제에 대해 아베 총리의 입장을 지지한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미일 양국 정상들은 똑같이 그들의 인내심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에 앞서 아베 총리는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핵과 납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출구가 없을 것”이라며 “북한이 이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고 내버려둔다면 우리는 중대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일리겐담로이터=AFP=연합뉴스

## 美 ‘한국禁輸 해제’ 전방위 압박

### 의회 “수출 오류 빌미 수입 규제FTA 비준 불허”

쇠고기 생산과 관련된 주나 상임위원회 출신의 미국 상원 의원들이 6일 한국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보류 조치를 강도높게 비난하며 한미 FTA 비준과 연계할 뜻을 밝히고 나서 주목된다.

맥스 보커스(몬태나) 미국 상원 재무위원장을 비롯, 벤 넬슨 의원 등은 내수용으로 가공된 갈비 등 쇠고기 66t을 우리나라에 잘못 수출해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검역이 전면 보류된 데 이어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중단될 수도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 것과 관련, 강한 불만을 토로하며

한국에 대한 조치를 촉구했다. 아이오와주 출신인 톰 하킨, 척 그레슬리 의원의 개인 성명을 통해 현행 한미 쇠고기 무역협정의 요건들을 충족시키는데 미국이 좀더 철저해 질 필요가 있다면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장시간 막는 구실이 돼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보커스 위원장은 성명에서 “인내심에 한계에 도달하고 있으며, 한국이 과학적인 기준에 따라 쇠고기를 수입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해 하고 있다”면서 “빠의 유무와 관계없이 모

든 미국산 쇠고기는 안전하며 한국은 국제기준을 준수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흘려보냈다”고 반발했다.

넬슨 상원의원은 한국이 지난 4일 또다시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수입 중단 조치를 취했다며 한국에 대해 강경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특히 한국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전면 재개하지 않으면 한미 FTA 협정 비준과 관련, 상임위에서 어떠한 심의도 착수하지 못하도록 촉구하는 서한을 보커스 위원장에게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워싱턴=연합뉴스

## 리덩후이, 日 야스쿠니 방문 강행

〈前 대만총통〉

### 개인적 차원·中 반발 강할 듯

일본을 방문중인 리덩후이 전 대만총통이 7일 도쿄 지요다구에 있는 야스쿠니신사를 방문해 논란이 되고 있다.

그는 오전 10시경 야스쿠니신사에 도착했다. 리 전 총통은 방문에 앞서 “이번이 마지막 일본 방문이 될지도 모른다. 개인적 차원에서 형의 위패가 있는 야스쿠니 신사를 방문한 것”이라고 밝혔지만 야스쿠니신사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해온 중국측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리 전 총통의 야스쿠니 방문에 앞서 류젠차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베를린에서 기자들과 만나 “일본이 적절하게 이 문제를 처리해 주길 희망한다. 이씨가 어떤 인물이며 활동 목적이 무엇인지는 일본이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일본측을 겨냥했다



리덩후이 전 대만총통이 7일 그의 부인과 함께 도쿄 지요다구의 야스쿠니신사를 방문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고 교도통신이 전했다.

야스쿠니신사에는 리덩후이 전 총통의 친형의 위패와 영정이 있다. 그의 형은 대만이 일본의 지배를 받던

1945년 2월 필리핀 마닐라에서 전사한 뒤 야스쿠니신사에 합사된 것으로 알려졌다. /도쿄=연합뉴스

### 미국내 인신매매 피해

### 한국·멕시코인 많아

미 법무부는 5일 2006회계연도(2005년 10월~2006년 9월) 동안 미국내 인신매매 사건에 대한 관련 당국의 조사를 위해 국토안보부로부터 임시체류허가(Continued Presence, CP)를 받은 인신매매 피해자 중 멕시코, 엘살바도르, 한국 출신이 많았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달 의회에 제출한 ‘2006회계연도 인신매매와 전쟁 활동보고서’에서 CP를 받은 사람은 모두 24개국 112명 이라며서 이같이 보고했다.

보고서는 그러나 지난 2005 회계연도 보고서에선 전체 CP 발급자 가운데 23.5%가 한국인이었다는 발표와는 달리 이번엔 국가별 CP 발급숫자를 언급하지는 않았다. /워싱턴=연합뉴스

## “94년 6월 미-북 전쟁 일촉즉발 직전 협상”

### 페리 前미 국방장관

지난 1994년 6월 1차 북핵 위기시 미국이 북한을 침공하기 직전에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의 주선으로 북미협상이 성사됐다고 윌리엄 페리 전 미국 방장관이 5일 밝혔다.

페리 전 장관은 미 외교협회(CFR)가 마련한 특강에서 “지난 1994년 6월 우리(미국)는 북한과 전쟁을 벌이

는데 아주 아주 근접했다”면서 “내가 백악관회의실에서 대통령에게 국가로 미군을 (한반도에) 2만~4만명을 파견하는 계획을 보고하고 있을 때 북한 김일성이 계획했던 재처리를 포기하고 협상을 할 준비가 돼 있다”는 전화를 받았다”고 말했다.

페리 전 장관은 당시 전면동원령이 내려지지는 않았지만 자신은 북한과의 전쟁에 대비하고 있었고 이미 수

천명의 미군을 (한반도 인근으로) 보냈던 상황이라고 밝혔다.

지난 1994년 1차 북핵 위기 때 미국이 북한의 영변 핵시설을 공습할 계획을 세웠다는 내용은 이미 알려졌지만 미국이 이처럼 수 천명의 병력을 파병하고 최대 4만명의 미군을 추가 파병할 계획까지 마련했을 정도로 사태가 급박했었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은 처음이다. /워싱턴=연합뉴스

### / 우리가 잘 모르는 보름달 이야기 /

달은 조수 간만의 차이뿐 아니라 범죄, 임신, 건강 등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조사 결과들이 나오고 있다. 영국 경찰은 보름달이 뜬 때 추궁장 발표율이 늘어난다는 보고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인디펜던트 신문은 7일 보름달과 연관돼 우리가 잘 모르는 이야기 50가지를 보도했다. 다음은 그

중 주요한 내용. ▲보름달이 뜬 때 개에 물릴 가능성이 2배 커진다. 영국 브래드퍼드 로열 병원은 1997~1999년 개에 물린 사례 1천621건을 조사해 이런 결론을 내렸다. ▲여성 생리주기도 보름달과 연관을 지녔다. 선사시대 남성은 에 피에 대한 금기 때문에 여성의

생리 기간에 사냥을 가는 경향을 보였다. 보름달이 떠 있는 동안 사냥의 수확률이 가장 많았다. ▲보름달이 뜬 때 아들을 임신할 가능성이 크다는 미신도 있다. ▲보름달은 둥근 모양으로 보이지만 실제로 지구를 향해 끝이 뾰족한 달걀 모양이다. /연=연합뉴스

## KARCHER 독일카처 특별기획전

... 적외선 감지 지능형 로봇청소기

이제 청소는 카처로보크리니에게 맡기고 생활의 여유를 즐기세요

- 혼자서 청소하고, 충전하고, 쓰레기까지 비웁니다. (충전시간:10분 1시간사용, 타사제품:1시간사용 2~3시간 충전)
- 바닥은 물론 카펫, 방과방사이, 문턱, 침대 밑 청소도 문제 없습니다.
- 흡입력, 최저소음, 쓰레기수집함, 충전재가동, 문턱통과, 추락방지 최고성능인정 (2006년 10월 소비자보호원 조사결과-시중 판매중인 12개사 제품)

카처는 수십년간 크리닝시스템분야에서 세계적인 명품브랜드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세계 70개국 우수디자인상 수상

www.kimyoung.com.kr

문의전화 062-655-1022 http://blog.daum.net/karcher 시/군 대리점 모집중

## 국비무료모집

과정	교육내용
기업사무자동화인력양성 영세자영업자 교육(07/6/1-3개월)	윈도우XP, 워드, 엑셀, 컴퓨터활용능력 등 다양한 기능 습득 (시간: 9:10-13:00)
*영세자영업자: 연간 매출액 4,800만원 미만 사업자 보험설계사, 학습지도사, 골프장 경기보조원등로 전액 국비교육, 교육료무료제공, 수당지급.	

### 주택관리사·공인중개사

자격자과정(교육기간)	교육내용(교육시간)
주택관리사 (월-토)	교육기간: 6/4~7/31 (월-금: 19:00-22:30, 토:15:00-18:30)
공인중개사 (월-토)	교육기간: 7/2~8/31 (월-금: 19:00-22:30, 토:15:00-18:30)
주택관리사 주말반(토,일)	교육기간: 7/7~8/26 (토14:00-20:00, 일10:00-17:00)

### 개강 6/4

사무자동화 (월-금) 엑셀, 엑셀스, 파워포인트 사무자동화실기 대비

### 기타 사항

- 고용보험가입 직장인 선착순 정원제 모집
- 수료 후 100%~80환급
- 수강절차: 훈련 상담→훈련수강신청서작성→훈련기관에 제출→수강
- 공인중개사/주택관리사 저지직강
- 공인중개사/주택관리사 강의 DVD 녹화대여로 반복학습

버스노선: 전남여고+부성37, 지원52, 지원54, 금남58, 두암81, 518, 예술의거리입구+중앙07, 금남56, 대촌70, 대촌170, 문화전당(구 도청)진월07, 잠단09, 지원45, 지원51, 지원52, 지원53, 금남55, 금남56, 금남57, 금남58, 금남59, 중앙61, 문흥80, 두암82, 518, 1187

☎ 노동부지정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

## 현대직업전문학교

☎ 224-4560, 224-4580, 232-1088 ☎  
위치: 동부경찰서 옆 http://www.hdedu.co.kr

= 전남 행정직 7급 21명, 9급 154명, 시험 10월 13일 시행 =

## 7.9 공무원 대비

속보 = 전남 9급 교육행정직 을 하반기 시행 =  
◎채용인원: 000명(약50명)이상 필듯, 합격에 절호의 기회◎  
※ 05년 12월 11일 165명 공채, 1875명출원, 응시률 9.1 경쟁이었다 ※

• 서울 7월 8일 • 전남 6월 23일 • 전북 9월 8일 시행 =

### 개강 6월 1주(월)만 모집

시험 문제풀이 1개월 완성

= 46년 전통의 “無等”은 “꼭” 합격 할 수 있다는 확신을 드립니다. =

www.mdgosi.co.kr ☎ 222-4560

www.kimyoung.com.kr  
그룹안 김영순 신 12만여명 합격

앞선 시작, 앞서가는 힘! 상위권 대학도 역시!

## 김영선생 대학편입 여름방학 편입대특강

개강: 1차 - 6월 25일, 2차 - 7월 2일  
올해도 역시! 거침없는 합격률!!

경희대(서울) 178명 합격, 고려대(안양) 228명 합격, 서강대 104명 합격, 성균관대 270명 합격, 중앙대 282명 합격, 한국외대 265명 합격, 연세대 385명 합격 등(이수자 기준, 단위 학부 제외)  
역시! 김영! 중앙대 102명 중 67명, 한양대 185명 중 137명

김영편입·PMS학원 (광주동부경찰서) ☎ 227-8088